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민원실 전남경찰청 본관 등 주요 건물. 광주항쟁 유적인 이들 건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 '열흘간의 나비떼'가 공간별로 나누어 전시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

## 민주평화교류원 문 닫은채 첫 5·18 맞는 亞문화전당

<광주항쟁 전시 공간>

5월 단체 총탄 흔적 등 원형 복원 요구로 공사 중단

내달 아셈회의때 개관도 불투명...광주 알릴 호기 날려

올해 5·18 민주화운동 추모기간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건물과 내부 전시콘텐츠를 선보이지 못하게 됐다. 광주항쟁의 체취와 정신을 느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광주항쟁의 핵심유적과 이를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을 선보일 이 공간은 닫혀있다. 오는 6월 아시아-유럽(ASEM·아셈) 문화장관회의 때도 개관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9일 정부소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공식 개관했지만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창조원과 더불어 문화전당 5개원의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이하 민평)의 개관 시기는 불투명하다.

민평은 옛 전남도청, 경찰청 본관 등 6개 건물로 구성된 공간으로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 등을 전시하는 문화전당의 대표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광주항쟁 10일간의 이야기를 풀어낸 '열흘간의

나비떼'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세계와 교감하기 위한 작품들이다.

예초 문화전당측은 민평의 리모델링 공사를 서둘러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한 뒤 올 상반기 안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상무관을 제외하고 도청 본관과 경찰청 본관, 회의실 등은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전시 콘텐츠도 90% 가량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도청 본관의 상황실, 방송실을 비롯해 진압군의 총탄흔적 등 원형이 훼손됐다"며 공사중단과 복원을 요구, 현재 일부 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원형복원 등 문제를 타결한 뒤 민평을 개관하자는 입장이다. 문화전당은 5월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복원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항쟁 주안과 아셈 개최 기간에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광주정신과 문화전당을 알릴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됐다. 사실 지난해 11월 문화전당의 개관을 계기로 국내외 인사들이 대거 광주를 찾았으나 민평은 문을 열지 못했다. 올해에도 민평 개관이 지연돼 오는 6월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회의도 부분 개관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행사는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오는 6월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예정이다. 아시아와 유럽 53개국 문화장관 등 대표단을 비롯해 취재진 등 60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한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이 문을 열지 못함에 따라 광주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문화부, 광주시, 5월 단체 등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국제적인 행사인 아셈이 열리는 기간에는 민주평화교류원을 개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적자만 쌓이는 광주·무안공항

이용자 줄어 지난해 31억·90억으로 급증...통합 등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

이용자가 급감한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운영 적자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광주공항은 지난해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광주공항 운영 적자는 2013년 25억500만원에서 2014년 22억97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89억6700만원의 적자를 냈다. 무안공항 운영 적자는 2013년 76억2300만원, 2014년 78억8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무안공항 운영 적자는 2~3년후 100억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운영 적자는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공항을 이용한 국내여객은 17만72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만8199명과 비교해 14.9% 줄었다.

제주공항(12.7%), 김포공항(6.0%), 김해공항(18.1%), 청주공항(44.3%), 대구공항(8.2%), 인천공항(6.0%) 등 다른 공항들의 국내여객 증가와 비교된다.

울산공항(-5.4%), 여수공항(-1.2%) 등과 비교해도 광주공항 국내여객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

올해 1분기 무안공항을 이용한 국제여객은 총 3만96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903명에 비해 22.1% 감소했다.

인천공항(11.6%), 김해공항(37.3%), 제주공항(18.5%), 대구공항(59.5%) 등 다른 공항들의 국제여객 증가와 대조적이다. 김포공항(-1.6%), 청주공항(-2.0%) 등과 비교해도 무안공항 국제여객

의 감소폭이 크다.

이같은 '공항 이용객 감소→운영 적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두 공항의 활성화 외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지역관광업계 관계자는 "호남선 KTX 개통으로 타격을 받은 광주공항은 앞으로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광주~서울 노선은 존재위기에 몰릴 것이 뻔하며 그렇게 되면 광주~제주 노선만 사실상 남게 될 것"이라며 "광주공항을 이대로 두고선 활로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무안공항은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며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진척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정부 '고교 무상교육' 포기하나

박대통령 핵심 대선 공약

20대 국회 추진 보류키로

교육부가 19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하기로 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교육부문 국정과제 법안 대부분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은 재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2013년 발의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그대로 계류돼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여건 재정상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 보류를 결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로, 교육부는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매년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예산 당국으로부터

터 퇴짜를 맞았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법을 없애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정 여건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의미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보다는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5·18 이틀이 있어 광주는 외롭지 않다

시민군 통역 인요한 박사 ▶6면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16면

유럽서 미국서 남자골프 코리안 데이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l (도시연비: 6.5km/l, 고속도로연비: 8.8km/l),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40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